남부대학교 우암학원 창학 72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Since 1995 PARAVIEW 다르게 짓고 바르게 짓는
삼일건설·삼일파라뷰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890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1월 2일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전남 관광지, 전국 시니어 세대 '힐링 명소' 각광

한국관광공사 카드 소비 분석, 관광소비 비중 전국 1위
느림과 시골스러움에 섬·고급 문화시설 겸비해 '매력'

전남이 관광업계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떠오르는 50세 이상 시니어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힐링 명소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느림'과 '시골스러움'을 갖춘 탈도시화의 마지막 공간이면서도, 천혜의 환경을 갖춘 섬과 섬을 기반으로 한 고급 문화시설을 겸비한 것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존 강원도와 제주, 경북 등을 주로 찾았던 관광객들이 최근 전남의 차별화된 매력에 이끌리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들 중장년층을 위한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열 방침이다.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전남도가 중장년층 관광객의 입맛에 맞는 관광 자원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 BC·신한카드 외지인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남이 천혜의 생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2021년 50세 이상 관광 소비 비중 전국 1위를 달성해 시니어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인기 관광지임이 입증됐다.

실제로 전남은 2019년과 2020년 모든 연령층 대비 50세 이상의 관광소비 비중 분야에서 경북에 이어 2위를 유지했으나, 2021년 45%로 조사돼 경북(44.6%)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전남도는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열기 위해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운영하면서 시니어 세대가 선호하는 ▲아름다운 섬 관광 ▲전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도내 안심 관광지 지속 확충 등 실버 관광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전남에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선정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인 신안 퍼플섬과 한국의 섬티아고로 불리는 12사도 순례 산책길 기점소악도, 청보리밭으로 유명한 완도 청산도 등 다양한 테마 관광이 가능한 명품 섬이 풍부하다.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의 대표적 버킷리스트는 '한 지역에서 일정기간 살아보는 여행'이다. 이 같은 중장년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맛깔난 남도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가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코로나19 이후 안심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남은 한국관광공사 선정 안심관광지에 순천만국가정원, 담양 죽녹원, 해남 포레스트수목원 등 26곳이 전국 최다로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안전여행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는 202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니어 세대는 과거 보살핌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재는 관광 소비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세대인 시니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경쟁도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시니어 세대를 비롯한 전 세대가 여행오고 싶어 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섬 해안 등 청정·힐링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고령층을 포함해 전남을 찾는 모든 관광객이 불편함 없이 즐기는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민국" 월드컵 응원 열기 후끈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경기가 열린 24일 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육조마당에서 축구팬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은, 금리 0.25% 포인트 올려 '3.25%'

6연속 인상에 자금시장 경색

한국은행이 2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한계단'만 올리는 이른바 '베이비스텝'을 밟으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했다. 〈관련기사 8면〉

하지만 연말에도 5%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면서 연초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포함해 사상 첫 '6연속 인상'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연 3.00%이었던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올해 4월부터 5월, 7월(빅스텝), 8월, 10월(빅스텝)에 이어 이달까지 사상 처음 6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었다.

6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은 대출 수요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날 기준 국내 5대 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은 연 7.832%로, 8%대 진입을 코앞에 뒀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뛰고, 대출금리 상승 폭도 같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약 3조3000억원 늘어난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에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 추정치(평균 74.2%)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내년 경기 한파 온다…경제 성장 1%대 그칠 듯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수출·투자 전망 어두워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대폭 내려 잡았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수출이 흔들리고 내수 전망도 밝지 않아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둔화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조정했다. 한은이 지난 8월 전망에서 제시한 2.1%에서 0.4%포인트 내린 수치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금리 상승 등으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소비 회복세도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시장에서 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경로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 흐름이 이어지다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 1.8%보다도 낮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금융연구원(1.7%) 등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으며 한국경제연구원도 세미나에서 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언급했다.

/연합뉴스

청년·신혼부부 울리는 전세사기 기승 ▶6면
북스 - '격정의 문장들' '소크라테스 …' ▶14·15면
도시가 기억하는 법 - 폴란드 브로츠와프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